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11/ 24 통권 1546호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날쌔경영과 투명경영

SASB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

회계법인 사무직원의 적법 업무범위와 성실근무 관리
감독 관련 공인회계사법 규정들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같은 달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의 거래기간 단위로만 발급가능함
-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화 대비 SASB 기준 국문번역 공개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용역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받은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p.11)

CEO·CFO·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경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戰略

<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총 세금부담 낮은 이유 >

개념, 구분	개인사업자 과세방법	법인사업자 과세방법
책임범위	무한책임(개인의 전 재산 영향)	유한책임(불입자본금 범위)
누진세율	6%-45% 당기 전부 적용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 20% 등
과세시점	당년도 소득 전액 당기과세	대표자 연봉 당기과세, 이익은 차년도 과세
소득구분	당년도 단일소득에 종합소득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자 연봉은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퇴직금(DC, DB)으로 분산 가능 연봉 · 퇴직금 차감 후 법인이익에 법인세
퇴직소득	사업주의 퇴직금 개념 없고, 전액 종합소득	대표자 근로소득(연봉)이외 퇴직소득(퇴직금 별도 가입)으로 배분가능
과세이연	연도간 과세이연 불능	이익 많이 나는 연도에 적시에 배당한 금액을 다른 연도에 이연과세
지분분산	대부분 대표자 100% 단일 → 소득 · 자금이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자 · 배우자 · 자녀 등 지분분산배분 → 가족간 배당으로 자금원천 가능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46호 / 주간 47호

2021. 11. 24. (수)

· 발 행 인 : 이 윤 연
· 제 작 : (주) 안세회계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총 세금부담 낮은 이유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회계법인 사무직원의 적법 업무범위와 성실근무 관리감독 관련 공인 회계사법 규정들	2
C E O 에 세 이	날쌔경영과 투명경영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프로모션 상품 교환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무역조건 변경시 매입처 매출인식에 대한 문의 - 외화 채권환수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같은 달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의 거래기간 단위 로만 발급가능함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상속세 개편에 관한 기획재정부 의견	10 11
직 장 인 Survival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언어습관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 결제한 경우 결제 당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역의 제공 시점에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서면전자세원-749, 2021.02.18)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면법령법안-4859, 2021.05.25)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금상당 챗봇 나온다...세무행정 비대면 시대 '활짝'	15
마케팅 Tax consulting	용역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받은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13
경 영 정 보	-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화 대비 SASB 기준 국문번역 공개	16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5

회계법인 사무직원의 적법 업무범위와 성실근무 관리감독 관련 공인회계사법 규정들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 회계법인 사무직원의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법 제50조(비회계사는 감사불가) 위반의 중대한 범죄임
- 특히 각 직원들 기장거래처의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독립성 준수) 위배로서, 불법감사수행과 독립성 위배라는 중복되는 범죄임.
- 또한 소속회계사 중에서도 파트너(출자사원)이사로 등기된 회계사만 감사수행가능(법 제34조) 규정이 상존함.
- 회계법인의 사무직원 고용과 지도감독책임(법 제13조)
회계사는 직무보조하는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부담
- 직무범위(제2조)
회계감사·기장·회계처리·세무대리는 회계사 고유업무이므로 사무직원은 중앙통제지침과 품질관리·운영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행하면 안됨.
- 공정성실(제15조) :
 - 누구나 공정·성실히 직무수행하며
 - 기장·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 품위손상행위는 안 되며
 -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하면 안됨.

7. 명칭사용금지(제11조) : 사무직원은 공인회계사 등 유사명칭 사용 절대금지

- 사용불가(회계법인 경영진 오인명칭) 전무, 상무, 이사, 부대표 등
- 사용가능 : 사무장, 팀장, 실장, 부장, 차장, 과장 등 직원 신분 Title

8. 비밀엄수(제20조)

회계사와 사무직원 모두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절대 금지임.

9. 직무제한(제21조) : 회계감사금지

- ① 본인·배우자가 임원인 회사, 1년내 직원이었던 회사, 이해관계회사
- ② 회계·재무제표작성, 내부감사대행, 재무정보체제구축운영
- ③ 자산·부채 등 매도매수실사, 가치평가 의견제시
- ④ 인사·조직지원·자문·충당부채계산
- ⑤ 민·형사소송자문
- ⑥ 자금조달·투자·알선·중개
- ⑦ 중요자산처분 등 의사결정자·임원역할 등

10. 경업금지(제35조)

소속 사무직원은 회계법인 업무에 속하는 동일·유사업무를, 자기나 제3자 명의로 수행하면 안됨.

11. 명의대여 등 금지(제22조)

- ① 사무직원 이외 다른 사람에게 회계법인 상호 사용금지하고, 등록증 대여금지
- ② 부정청탁 등 금지, 금품·이익수수요구와 부정약속금지, 위촉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금전이득 얻는 협조·상담금지

12. 사무실 사용(제32조)

사무직원은 회계법인의 본사·분실·각 지점 등 사업장 근무(또는 재택근무 가능함).

13. 성실신고확인서(소득세법 제70조의2) : 성실확인인 회계감사에 준하는 인증업무로 소속회계사만 수행가능함.

날쌔경영과 투명경영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칭기스칸은 항상 승리했다. 전광석화같이 빨랐기 때문이다. 질풍노도와 같이 말을 달려 적을 순식간에 궤멸시켰다. 당시 유럽기사단 갑옷과 전투무기의 무게는 70kg이었다. 반면에 칭기스칸 쪽은 7kg밖에 되지 않았다. 유럽병사들은 철갑통으로 된 갑옷을 입었다. 또 긴 창을 가지고 다녔다. 위풍은 당당하고 그럴싸했지만 둔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칭기스칸군은 얇은 철사로 된 스프링을 넣은 가벼운 옷을 입고 전투에 임했다. 당연히 날쌔다. 말과 한 몸이 되어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적을 격파할 수 있었다.

GE의 전 회장 잭 웰치는 과감하고 단호했다. 그의 '10% 꼬리 잘라내기'는 잔인했다. 그는 '활력곡선(Vitality curve)'을 활용해 조직구성원을 핵심정예(20%), 중간층(70%), 하위(10%)로 구분했다. 그리고 하위 10%에 대해서는 상시 정리하고 시켰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만에 문제사원이 거의 제거되어 관리자들이 10% 선정에 곤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계속 밀고 나갔다. 그래서 그는 CEO재임기간 20년에 걸쳐 엄청나게 기업 가치를 증대시켰다.

그러나 오너의 혈육이나 친인척이 군데군데 박혀있으면 우선 공정평가가 어렵다.

오너군이 각별히 끼고 도는 이들에 대한 평가가 순수 샐러리맨 임직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끼고 도는 이들에겐 늘 뭔가 은밀하고 야릇한 냄새가 나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는 한 '꼬리 잘라내기'는 체쳐 놓고라도 평가 자체가 모두 허위이기 쉽다. 이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가치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가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은밀하고 야릇한 냄새는 거의 두말할 필요없이 거짓과 부패에서 난다. 2001년 미국의 대형에너지기업 엔론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것이 적발돼 파산됐다.

엔론은 1985년 휴스턴 천연가스와 인터노스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 인수합병(M&A)으로 엔론에는 50억 달러의 채무가 발생했다. 그런데 케네스 레이 당시 엔론회장은 이 채

무가 드러나는 것이 부채가 신뢰를 깎아 매출증대에 손상을 입힐까 염려했다.

결국 이들이 선택한 것은 분식회계와 회계조작이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엔론의 빚을 이 회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떠넘긴 것이다. 엔론은 이 법인에게 ‘지급보증’을 해줬지만 엔론재무재표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세는 확대됐다.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씹씹이는 해퍼졌다. 이러는 사이 회사는 점점 망가졌다. 결국 이들의 회계조작을 묵인해줬던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도 손을 들고 말았다.

회사는 파산했고 레이 회장과 참모는 경제사범으로 각각 24년 4개월, 24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에서는 철저히 응징되고 기업의 투명경영에 대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에선 어떤가?

2015년 한국대표적 재벌기업 계열사인 ‘S사·J사 합병’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격인 ‘J바이오’라는 유명기업을 만들어 J사의 기업가치를 3조원가량 부풀려 재벌3세의 경영세습에 따른 L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시도한 것에 대한 재판은 아직까지 진행중인 대형 사건이다. 두고 볼 일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12일 (금)	11월 15일 (월)	11월 16일 (화)	11월 17일 (수)	11월 18일 (목)
미	달	러 (USD)	1184.70	1179.60	1180.20	1179.60	1183.60
일	본	엔 (JPY)	1038.80	1034.78	1034.22	1027.03	1036.34
캐	나	다 달 러 (CAD)	941.25	939.96	943.67	938.80	938.55
홍	콩	달 러 (HKD)	152.03	151.39	151.52	151.48	151.97
위	안	화 (CNH)	185.15	184.48	185.04	185.07	185.37
유	로	화 (EUR)	1356.19	1349.88	1342.01	1335.07	1339.54
호	주	달 러 (AUD)	863.88	864.94	867.03	860.87	859.94
싱	가	폴 달 러 (SGD)	874.54	872.26	871.70	869.17	873.12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4.24	283.15	283.60	283.15	283.23

프로모션 상품 교환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Q 한시적으로 호텔 부페 교환권을 만들어 판매 하고자 합니다.
단순 교환권 개념으로 1년 내에 교환 가능 연장 안 되고, 일반 상품권과 같이 금액이 남으면 환불 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상품권이 판매되면 매출이 아니라 사용되는 시점에 매출 발생 하면서 상품권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등이 가능한데,
이번 교환권은 판매시점에 매출로 잡고 (현금영수증발행가능) 교환권이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매출은 비용 처리 하려고 합니다만 문제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교환권 사용시점에는 현금영수증등 발행불가)

A 교환권 자체가 별도의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상품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상품권의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Q 임대차 계약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간이 아래와 같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 문의드립니다.
1)8/24~9/14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8월로 해야하는지 9월로 해야되는지 여부
2)9/15~/10/14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9월로 해야하는지 10월로 해야되는지 여부

A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세금계산서 발급일이지만,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됩니다.

무역조건 변경시 매입처 매출인식에 대한 문의

Q 당사의 수출제품 중 무역조건이 DAP(수입자가 지정한 창고에 입고기준)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의 매출인식 시점은 기존에 선적기준일 기준으로 계상하고 해당 제품을 당사에 공급하는 거래처(당사기준 매입처)도 선적일 기준으로 매입마감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당사가 무역조건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게 하면서 DAP(수입자가 지정한 창고에 입고기준) 조건을 적용하게 될 예정인데, 당사에 납품하는 거래처의 매출액 인식 시점을 기존과 동일하게 당사 매출액 인식시점으로 계상해도 무방할런지 여부입니다.

즉, 기존 선적기준 조건과 같이 DAP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A 매출액 인식은 세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는데, DAP조건의 경우 창고에 입고되는 시점이 해당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시점이며 매출인식시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외화 채권회수

Q 관계회사간 거래에서 매출거래가 발생하였으나, 중국의 관계회사에서 당사에 채권에 대해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계회사를 대신하여 대만에 있는 관계회사에서 당사의 채권금액에 대해서 지불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1. 당사와 중국의 관계회사 간의 매출 거래 발생, 당사에서 약 \$2,000,000의 매출채권 발생
2. 중국의 관계회사(A)에서 당사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3. 중국의 관계회사(A)와 대만의 관계회사(B)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대해서, 관계회사 B가 관계회사 A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기로 함.
4. 그래서, 대만관계회사 B가 당사에 \$700,000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사항)

1. 당사가 중국 관계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일정부분 채권 금액을 대만의 관계회사에서 받는 경우, 특별한 세무 issue가 있는지요?
2. 세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귀사가 매출거래처가 아닌 매출거래처의 관계사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서류 등을 구비하면 되며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될 사항이 아닙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같은 달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의 거래기간 단위로만 발급가능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의 인도시점 또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시점을 거래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거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정거래처의 경우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리를 위한 시간적·비용적인 낭비가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일 경우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동안의 거래내역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바로 '월합계세금계산서'제도가 그것이다.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월합계세금계산서는 ① 거래처별로 1역월(달력상의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급하거나, ② 거래처별로 1역월(달력상의 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즉, 1역월간의 거래를 모두 합계하여 매월 말일자로 전체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며, 거래당사자간에 10일간 또는 15일간의 특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일정기간 합계한 세금계산서라도 다음달 10일까지는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서삼 - 953, 2004. 05. 1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해당하는 것임.

1역월의 범위

월합계세금계산서는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발급하는 것인데, 이때의 1역월이란 달력상의 월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1역월의 공급가액의 합계'란 매달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이라 함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사이에서 거래당사자간 임의로 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의로 정한 기간이 30일 이내라도 역월을 달리하는 경우는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 11월 1일~11월 15일까지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지만 11월 20일~12월 5일까지의 15일간 또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31일간 등은 역월을 달리하므로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 서삼46015 - 11127, 2003. 07. 1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당해 월의 말일 또는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1역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거래상대방이 고정거래처인 경우만 해당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일정량 이상의 거래를 하는 고정거래처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빈번한 거래를 하는 고정거래처간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된 특례이므로, 1역월의 기간동안 1건의 거래만 있는 임의의 거래처 등에게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그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1역월 또는 1역월내의 임의의 기간중의 거래가 1회에 불과한 경우 등 고정거래처가 아니면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서삼 - 277, 2004. 02. 18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것이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일반 개인투자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담

대주주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범위

- 코스피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1% 이상
- 코스닥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2% 이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여부 무관하게 연 250만원 이상 수익시 과세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업 종	직전연도('20년 귀속) 수입금액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천500만원 이상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
자임(소득세법 시행령 § 208)



상속세 개편에 관한 기획재정부 의견

	구분	현재	정부 의견
상속	세율	10~50%	조정 어려워
	세금 계산방식	총액 기준 유산세	상속인 별 유산취득세 (중장기 검토)
	연부연납	최대 5년	최대 10년
가업상속	공제한도	500억원	완화 어려움
	사후관리	7년 의무	완화 어려움
	매출기준	3000억원 미만	4000억원 미만
영농상속	공제한도	15억원	20억원



금융투자상품 자본손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과세	상품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	
현행		이자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매매)	배당소득 (배당금)
'23년 이후		이자소득	금융투자소득(통산)			배당소득 (배당금)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언어습관

1. 이제 됐어(I'm done)

무언가를 할때 사소한 것들에까지 신경을 쏟을 필요가 없다.

일정한 양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항상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2. 뭘 좀 도와 드릴까요? (How can I help?)

남을 먼저 도우면 후에 당신도 도움을 받기 쉽다.

지속적으로 사람사이의 관계에 신경을 쓴다면 좋은 동료를 만들 수 있다.

3. 사랑합니다(I love you)

사랑받는 기분은 힘을 준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동료와 지인들에게 먼저 사랑을 전하라.

4.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I want this)

원하는 것을 찾고 분명히 표현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첫 번째 단계다.

5. 내가 이런 일을 했어 (I did this)

당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더 성장할 수 있다.

6. 다 괜찮아질 거야 (It will be okay)

밤이 길어도 새벽은 꼭 찾아온다. 다른 이들의 시선을 두려워 말고 긍정적 태도로 끝까지 해내라.

7. 고마워요 (Thank you)

누구도 혼자 힘으로 사는 사람은 없다.

'감사해요'의 다른 말은 '당신 없이는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이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용역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받은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 결제한 경우 결제 당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역의 제공 시점에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서면전자세원-749, 2021.02.18

질 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 결제한 경우 결제 당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역의 제공 시점에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 신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베셀 및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법인-1242, 2021.05.18

질 의

- 질의법인은 반도체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19년 신규 시설 투자 실시
 - 시설 투자항목 중 베셀(Vessel)* 및 반도체소재 제조 공정에 필요한 클린룸**시설을 증설하였음
- *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 수가지의 수지와 용재를 투입하여 온도, 압력 등의 조절을 통해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가져와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장비
- ** 미세 먼지, 오염 물질 등으로 인한 제품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의 미립자, 공기의 온·습도, 실내 압력 등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시설

질의내용

- 베셀 및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공조기, 에어샤워, 로드셀, 에어컴프레서 등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베셀 및 클린룸 설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

회 신

내국법인이 반도체 소재 제조를 위해 시설 투자한 베셀 설비와 클린룸 내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2)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해당 설비의 특성,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면법령법인-4859, 2021.05.25

■ 질 의

-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매매로 포괄승계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 포괄승계한 2호 이상의 해당 주택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세 제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여 2호 이상의 해당 주택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서면법령소득-152, 2021.05.17

■ 질 의

-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의2에 근거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사간 상호 합의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사업주는 지급받은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시 전액 환수됨

질의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사업주가 이를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위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2021.5.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2021.5.13.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금상담 챗봇 나온다… 세무행정 비대면 시대 ‘활짝’

국세청이 세금신고와 납부에 이어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간편조사 등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국세행정개혁 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에서 국세청의 납세서비스 개편 및 장기개편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국세청은 지난해 9월 발족한 민관연 협업체계 기반의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 대한 성과와 업무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국세행정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했다. 국세청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세무상담, 민원증명, 신고납부, 권익보호, 복지세정 5개 분야 서비스에 대한 단기 개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세무상담 부문에서는 24시간 자동 상담 서비스인 챗봇을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적용했으며, 오는 30일부터는 양도소득세도 상담 챗봇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장려금 신청지급, 학자금 상환 등 많은 국세행정 분야에서 챗봇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자동화에 착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스템 측면의 개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간 종합소득세 100만원 미만, 중간예납에서 제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15일 소위 논의를 통해 연간 종합소득세가 6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에서 제외했던 것을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종합소득세는 5월 납부가 원칙이며 전년도 납부세액이 6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절반을 전년도 11월에 한 차례 중간예납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연간 종합소득의 절반이므로 연간 종

합소득세액이 60만원(중간예납세액은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제외 혜택을 받게 된다.

조세소위는 해당 규정(2014년)이 생겼을 때에 비해 경제규모가 성장했던 것, 코로나 19로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연간 종합소득세액이 100만원 미만)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잠정합의했다.

개정법률은 소득세법이다.

부가가치세 돌려받아 늘어난 소득도 ‘법인세소득세’ 내야 한다

행정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아 소득이 늘어났다면, 부과제척기간 관계없이 그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잠정합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세금에는 경정청구기간과 부과제척기간이란 게 있다. 예를 들어 소득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자도 국세청도 세금을 잘못 냈어도 손 댈 방법이 없다.

납세자의 경우 통상 세금을 더 냈다며, 과세당국은 세금을 덜 냈다며 소송을 전개하는 데 그동안 손 댈 수 있는 기간은 정지된다. 5년 전 신고한 세금을 5년에 걸쳐 소송해 승소한 경우 신고 후 10년이 지났어도 세금을 돌려받거나, 또는 세무당국에서 과세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연동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소송은 승소시 납세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며, 소득은 소득세 내지 법인세로 연결된다.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했지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연동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소송 장기화로 지나버리면 현행 법에서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이날 조세소위는 부가가치세처럼 과세표준 변경시 소득세나 법인세로 연동되는 경우 연동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보장해 세금징수권을 보장하자고 잠정 합의의 결론 내렸다.

SASB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

- 금융위원회, 2021. 11

-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제적 표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만한 SASB* 기준을 번역하여 공개합니다.
 - * SASB : 美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으로 현재 미국의 다수 기업들이 SASB 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중 → ISSB와 통합예정
- ◇ 기업들은 SASB 기준 국문번역의 내용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배 경

- 금융위원회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21.1.14.(목) 발표) 중에 있습니다.
 - *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시 일정 : (~'25) 자율공시 → ('25~'30)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의무화 → ('30)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코스닥은 미정)
- 국내 약 130여개 기업은 해외의 주요 지속가능성 기준*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개하고 있습니다.
 - *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기준,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 권고안,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ASB) 기준 등
- 해외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지난 COP26 회의('21.11.3.)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을 발표하면서, 공시기준의 국제적 표준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內 설립
- 지속가능성 보고의 단계적 의무화 및 공시기준의 국제적 표준화에 국내 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 SASB 기준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개합니다.

* 기업의 재무보고를 위한 회계처리기준 제정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이 번역

(참고) SASB 기준의 개요

- ① 제정주체 : Value Reporting Foundation(가치보고재단)(→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와 통합기준위원회(IIRC)가 지난 '21. 6월 합병)
- ② 발표년도 : 2018년
- ③ 기준서 구성 : 개념체계 및 적용지침과 총 77개 산업별 기준으로 구성
- ④ 공시 내용 : 재무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기업가치(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⑤ 특징 :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산업별로 공시기준을 제공

2 「ESG정보공개 가이드스」와 SASB 기준의 관계

- 지난 1월, 단계적 의무화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자율공시를 촉진하고자,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 동 가이드스는 ESG 정보공개 필요성,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작성과 공개 절차, 그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ESG 정보공개와 관련한 글로벌 표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히, 기업이 GRI, SASB 등 글로벌 정보공개 표준* 중 기업 상황에 적합한 표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 Best Practice를 제공함으로써 ESG 정보공개에 익숙하지 않은 상장법인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주제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다수의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존재하며, 국내 기업들은 GRI, SASB, TCFD 등 대표적 기준을 사용중
- 즉, 동 가이드스는 기업이 ESG정보공개시 준비·고려해야 할 사항 전반을 제시한 안내서이며,
 - SASB 기준 등 주요 글로벌 정보공개 표준의 상세한 내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SASB 기준 국문번역의 필요성

1. 국내·외 SASB 기준의 활용도 증가

- SASB 기준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를 수행하는 국내·외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SASB 기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 *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한 韓기업 중 SASB 기준을 활용한 기업(개, 비중 %)]
('20) 16개사, 11.6% → ('21) 34개사, 24.6% (출처: SASB 홈페이지, 한국표준협회)
[SASB 기준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한 美기업 수]
('19) 86개사 → ('20) 349개사 → ('21) 506개사 (출처: SASB 홈페이지)

- 국내 기업들은 국문이 없어 SASB 기준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보고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SASB 기준 기반으로 국제기준이 제정될 가능성

- IFRS재단이 ISSB를 설립함으로써 지속가능성 공시의 국제표준화가 본격화되고,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노력이 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 특히, ISSB가 개발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토대는 SASB 기준(특히,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 기준 제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금융당국은 국제표준화 기준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SASB 기준을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4 국문 SASB 기준의 주요내용

① 공개대상

- 지속가능성 보고를 수행 중인 국내기업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SASB 기준 중 개념체계, 적용지침과 함께 10개의 산업*별 기준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우선 공개합니다.

- * ①가정 및 개인용품, ②산업용기계, ③상업은행, ④전력발전, ⑤주택건설, ⑥철강제조, ⑦전기 및 전자장비, ⑧투자은행 및 중개, ⑨하드웨어, ⑩화학

② 10개의 산업 기준별 주요 공시주제

- ① 가정 및 개인용품 : 물 관리, 제품 환경보건안전 성과, 포장재 수명주기 관리 등
- ② 산업용기계 : 에너지 관리, 작업자 보건 및 안전, 연비 및 사용단계 배출량 등
- ③ 상업은행 : 데이터 보안, 금융포용 및 역량구축, 시스템적 위험관리 등
- ④ 전력발전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자원 계획, 대기질, 물관리 등
- ⑤ 주택건설 : 토지이용 및 생태학적 영향, 작업자 보건 및 안전 등
- ⑥ 철강제조 :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 배출량, 에너지 관리, 물 관리, 폐기물 관리 등
- ⑦ 전기 및 전자장비 : 에너지 관리, 유해 폐기물 관리, 제품 안전, 제품수명주기 관리 등
- ⑧ 투자은행 및 중개 : 기업윤리, 전문가적 진실성, 종업원 인센티브 및 위험 감수 등
- ⑨ 하드웨어 : 제품 보안, 종업원 다양성 및 포용, 제품수명주기 관리 등
- ⑩ 화학 :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관리, 물 관리, 유해 폐기물 관리 등

5 기대효과

- ① 기업들의 SASB 기준 이해도를 증가시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 ② SASB 기준 활용도를 높여, 보다 일관된 국내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기여하고 투자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③ SASB 기준을 토대로 제정('22년 하반기)될 국제표준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국내 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6 향후계획

- ISSB설립 및 국제표준 공시기준 제정 추진 등에 따라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확산 될 가능성이 큰 만큼
 - 우리 기업들이 ESG공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 또는 참여할 것이 요구됩니다.
- 원활한 실무 적용을 위한 지원센터(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센터)를 운영하고(11월초~), 기업 수요에 따라 여타 SASB 산업 기준서도 순차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SASB 기준 번역) 현재 공개하지 않은 SASB 산업 기준서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국문 번역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SASB 가이드라인) 기업이 SASB 기준을 보다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SASB 가이드라인을 '22년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용어 설명 >

-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국제재무보고기준을 제정하는 비영리조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으로 구성
-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업가치에 단기, 중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 등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보 공시



별첨 1 -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FAQ

1. ISSB가 '22년에 기후(climate)를 주제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 예정인데, SASB 기준 일부를 번역하여 공개하는 이유는?

- ISSB가 '22년에 제정할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국내에 도입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전까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기준들을 활용하여 보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그 경과적 시기(transitional period)에 SASB 기준의 중요성과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바,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보고 활성화 차원에서 공개함

2. ISSB가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만들면 국내 상장기업들은 이 공시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는지?

- ISSB 공시기준*의 국내 적용방식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
 - * '22.2분기 초안 발표, '22.하반기 확정 예정
 - ISSB는 동 기준의 적용, 수정, 의무화 여부에 대해 각국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발표
 - ISSB 공시기준의 구체적 내용, 국가별 적용방식 등 국제 논의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나라에 적용방식을 검토할 예정

3. ISSB의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추진과 정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의 관계는?

-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은 변함 없음
 - ISSB는 ISSB가 제시하는 공시기준의 적용, 수정, 의무화 여부에 대해 각국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발표
- 다만, ISSB설립 및 국제표준 공시기준 제정 추진 등에 따라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 국제기구 논의동향, 각국 공시제도 운영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검토를 계속할 방침임

4. ISSB가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만들면 기존 제정기구가 이미 만들었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사용 가능한지?

- ISSB는 국제적으로 단일한 공시기준을 제정하되, 동 기준의 적용, 수정, 의무화 여부 등은

각국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발표

- 따라서, ISSB가 제정할 기준이 전세계 지속가능성 공시의 국제적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
 - 개별 국가에서는 국가별 정책, 이해관계자 요구 등에 따라 추가 공시 요구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이 경우 기존의 다른 기준도 활용 가능)
- 다만, ISSB가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제정한 기존의 국제기구들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기준들이 ISSB 기준과 통합될 것으로 기대됨

5.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 우리 기업들이 ESG공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 또는 참여할 것이 요구됨
- 의무화 일정 전이라도 '21.1월 거래소가 발표한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를 기초로 자율 공시에 적극 참여할 필요
- ISSB가 제정할 기준은 GRI, SASB, TCFD 등 기존에 제시된 기준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동 기준의 기본적 내용들은 거래소 가이드스에서도 소개하고 있음
 - 따라서, 거래소 가이드스를 기본으로 하되, 주요한 국제기준도 함께 참고하여 ESG공시에 대비하면 됨
 - * 거래소·회계기준원·상장협 등 온·오프라인 교육, 토론회 등도 적극 활용
- 정부도 국제기준 제정 및 주요국 논의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 적극 제공하고 거래소 가이드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별첨 2 -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 ◇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한 다양한 국제기구, 국제기준 등이 존재*
- 이 가운데 GRI, SASB, TCFD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
 - * '21.1월 기준, 약 374개의 ESG정보공개 표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Sustainalytics)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 (GRI)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가장 널리 사용중이며, 업종에 관계 없는 포괄적 지표 제공)
- * '97년 美환경단체 세레스(Ceres)와 UN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되었고, '16년 GRI스탠다드를

공개하여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SASB) 재무적 성과와 연계된 ESG요소를 중심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할 산업별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제시
 - *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 '18년, 각 산업별 중대이슈(materiality)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77개 산업별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을 발표
 - ※ '21.6월, SASB와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국제통합보고위원회)는 합병하여 Value Reporting Foundation으로 재탄생
- (TCFD) FSB가 설립한 TCFD는 기후 관련 재무공시 권고안*을 마련하였음('17.6월)
 - *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 '15.12월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FSB)에 설치한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TF
 - ** '17년, TCFD는 기후변화 관련 기업의 4가지 핵심요소(①지배구조 ②경영전략 ③위험관리 ④측정기준 및 목표설정)에 대한 정보공개 권고안을 발표
- (ISSB) '21.11월, IFRS재단은 ESG표준화와 관련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을 위해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설립*
 - * IS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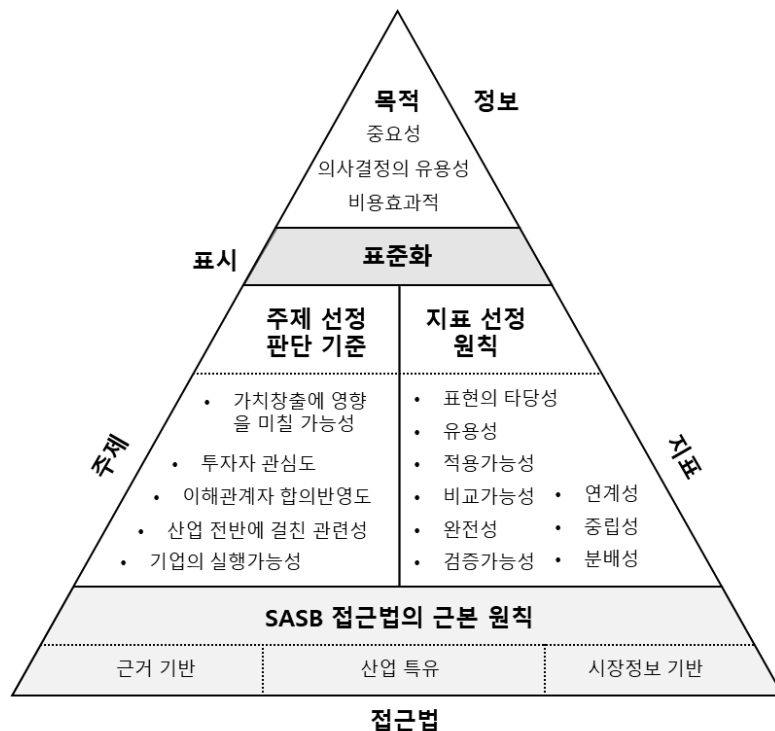
붙임 1 - SASB 개념체계

서론

본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한 문서에서는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소속 전문위원들(이하 "위원회")이 지속가능성회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본 개념, 원칙, 정의, 목표를 정한다. 동반되는 문서인 「SASB 절차에 관한 규정(SASB Rules of Procedure)」에서는 기준제정에 대한 지배구조 절차 및 관행이 중점적으로 기술된다. 이 문서들은 함께 위원회 및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본 문서의 1장에서는 지속가능성회계의 목적 및 수요자를 기술하는 지속가능성회계의 개요를 살펴본다. 이 문서의 나머지 장의 내용은 아래 제시된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그림 1을 보면 SASB의 기준 제정 작업 과정에서 여기에 포함된 다양한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고 구축되는지 알 수 있다.

그림1: SASB 체계



SASB 소개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는 독립적인 501(c)(3) 비영리 기관이다. 상장기업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중요하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공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성회계의 기준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SASB의 설립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근거기반 연구 및 균형 잡힌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달성된다. SASB 기준은 현재 미국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제출하는 Forms 10-K, 20-F 등의 공시와 함께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1. 지속가능성회계 및 공시 개요

미국 자본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최초의 지속가능성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SASB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다룬다.

- 지속가능성회계란 무엇인가?
- 지속가능성회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 재무회계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 의도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지속가능성회계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는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고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한다.

SASB 기준의 목적을 고려하면, 지속가능성이란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기업 활동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회계는 이러한 기업 활동의 측정, 관리, 보고를 일컫는다.

지속가능성회계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환경 및 사회적 자원에 대한 경영을 반영한다. 또한 지속가능성 과제가 혁신, 사업 모형,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반대로의 영향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SASB의 지속가능성 주제는 다음의 다섯 가지 포괄적 지속가능성 범주를 기준으로 구성된다.

1. **환경.** 이 범주에는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을 생산요소에 대한 투입물(예: 물, 광물, 생태계, 생물다양성 등)로 사용하거나 천연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예: 공기, 토지, 물 등)으로의 유해한 방출을 통하여 환경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을 포함한다.
2. **사회적 자본.** 이 범주는 사회에서 기업 활동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인식된 것 또는 기업이 기업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운영 인가(Social License to Operate, SLO)를 받는 대가로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된다. 사회적 자본은 고객, 지역사회, 공공 및 정부 등 주요 외부 당사자와의 관계 관리를 다룬다. 여기에는 인권, 취약 집단 보호, 지역 경제 개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접근 및 재화와 용역의 품질, 가격적정성(affordability),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마케팅 관행, 고객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안이 포함된다.
3. **인적 자본.** 이 범주에서는 장기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자산인 기업의 인적 자원(직원 및 개별 계약자)에 대한 관리를 다룬다. 직원 참여, 다양성, 성과보수, 그리고 보상과 같이

직원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물론, 특정 능력, 기술이나 교육이 필요한, 경쟁이 치열하거나 제약이 심한 시장에서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사안도 포함된다. 규모의 경제에 의존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을 하는 산업 및 레거시(legacy) 연금 부채가 쌓인 산업에서의 근로 조건 및 노사 관계 또한 다룬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리와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안전근무 문화를 조성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4. 사업 모형 및 혁신. 이 범주에서는 지속가능성 사안이 혁신과 사업 모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기업의 가치 창출 과정(예: 자원 회수, 생산 과정에서 혁신, 제품의 설계, 사용, 폐기에서의 효율성 및 책임을 포함한 제품 혁신)에 환경적, 인적 및 사회적 사안을 통합하는지를 다룬다. 유형자산과 금융자산(기업 소유 자산 또는 다른 기업의 수탁기관으로서 관리하는 자산)에 미치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 관리 또한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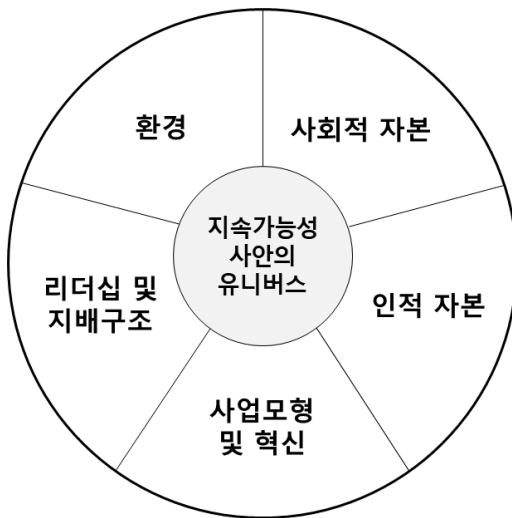
5. 리더십 및 지배구조. 이 범주에서는 사업 모형에 고유하거나 해당 산업에서 일반적인 관행에 해당되고 보다 포괄적인 이해관계자 집단(정부, 지역사회, 고객, 직원 등)의 이익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혹은 심한 경우 운영 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규제 준수와 규제 및 정치적 영향이 포함된다. 또한 위험 관리, 안전 관리, 공급망 및 자재 조달, 이해 갈등, 반경쟁적 행동, 부패 및 뇌물수수도 포함된다.

잠정 기준 개발 과정에서, 위원회는 위 다섯 가지 지속가능성 범주를 기반으로 구성된 30개의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사안 초기 집합(그림 2 참조)에서 지속가능성 주제를 식별했다.

그림 2: SASB 지속가능성 사안 유니버스(Universe)

<p>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 • 대기질 • 에너지 관리 • 연료 관리 • 물 및 폐수 관리 •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리 • 생물다양성 영향 <p>사회적 자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및 지역사회 관계
--

- 접근성 및 적정가격
- 고객 편익
- 데이터 보안 및 고객 프라이버시
- 공정한 공개 및 라벨링
- 공정한 마케팅 및 광고



인적 자본

- 노사관계
- 공정 노사관행
- 다양성 및 포용성
- 직원 건강, 안전, 복지
- 보상 및 복리후생
- 직원 채용, 개발, 유지

리더십 및 지배구조

- 체계적 위험 관리
- 사고 및 안전성 관리
- 사업 윤리 및 지급 투명성
- 경쟁적 행위
- 규제포획 및 정치적 영향력
- 자재 조달
- 공급망 관리

사업 모형 및 혁신

- 재화와 용역의 수명주기에 걸친 영향
- 자산 및 영업에 미치는 환경적·사회적 영향
- 제품 포장
- 제품 품질 및 안전성

위원회의 잠정 기준 제정 작업이 위의 지속가능성 사안 "유니버스"로부터 출발했지만, 이 방대한 목록은 해당 산업 내 기업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을 파악하도록 고안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다. 사안별로 발생 맥락에 따라 생기는 영향이나 결과가 각기 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업에 따라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이 다르며, 이는 각 산업마다 고유한 지속가능성 프로파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SASB의 산업별 잠정 기준에 포함된 공시 주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 사안 유니버스의 하위 집합이며 산업별 특수한 맥락에 맞춰 고

안되었다.

지속가능성회계 및 공시의 목적

시장가치는 일반적으로 장부가치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전통적인 재무제표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창출 역량에 기여하는 모든 요소를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 차이"의 상당 부분은 환경적, 사회적 및 인적 자본과 기업 지배구조의 관리 또는 부실 관리에서 기인하거나 이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보고는 모든 중요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측정과 보고가 가능하도록 재무제표를 넘어서 확장되어야 한다. 재무회계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회계도 확인가치와 예측가치를 모두 지니고 있어, 과거 성과 평가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에도 활용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회계를 재무회계와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기업의 장기적 가치 창출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에 관한 기업의 성과를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재무회계에도 지속가능성 성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다. 그러나 재무회계는 대개 기업의 현재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가능성 사안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적절한 가치평가 기법 또는 적합한 시장가격 결정의 부재로 인해 본질적으로 제한된다. 환경적,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은 개념적으로 경제적 자산 및 부채로 이해될 수 있지만,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가능성 요소들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SASB 기준은 바로 이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회계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법은 현재 또는 미래 재무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하고 산업특유의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영업 지표(operational metrics)를 정의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재무회계 정보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회계 정보는 과거 및 현재의 성과를 반영하며, 경영진이 보고 기업의 재무상태나 영업성과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알려진 동향(known trends), 사건 그리고 불확실성을 기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미래 지향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SASB의 질적 지표와 양적 지표 모두 투자자와 채권자의 관심 대상이 될 것이며 기업의 성과를 보다 완전하게 반영하고 공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즉, 지속가능성회계를 통해 보고 기업의 펀더멘탈(fundamentals)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알려진 동향"의 영향은 다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

-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필요한 중요 자본의 관리
- 그러한 자본의 고갈 또는 오용에 대한 취약성
- 신규 혹은 기존 규제 또는 변화된 사회적 규범에 대한 노출

- 대체 자원 또는 사업 모형 관련 시나리오 계획수립
- 특정 환경적 사회적 또는 지배구조 관련 사안의 부실 관리 관련 위험
- 전 세계적 또는 산업별 지속가능성 과제와 관련된 기회

SASB는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회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한 기업(및/또는 전체 산업)의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가치 창출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과 이에 대한 전망을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지속가능성회계를 통해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안에 관한 기업들의 전략과 운영에 근거하여 기업들을 더 잘 비교하고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성회계기준의 이용자

SASB 기준은 현재 미국 규정에 따라 상장기업이 Forms 10-K, 20-F, 40-F 상의 중요한 지속가능성 요소에 관한 공시를 할 때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SASB 기준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증권발행기업에게 비용효과적인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시장 수요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기준이다.

SASB 기준은 개인소유법인 및 다른 국가에서 상장된 해외법인 등 그 밖의 유형의 기관이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SASB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위원회는 SASB 기준과 지표를 기존의 체계들 및 다른 보고 메커니즘과 프로토콜, 예를 들어 규제기관 제출 보고서 또는 산업 자체 모범적 관행 등에 연계하고자 한다.

홈페이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자발적 산업 보고, 정부 기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등 중요한 이해당사자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정보 일부를 이미 공개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SASB 기준은 법정 재무성과 제출에 활용되어 투자자 및 그러한 공시에 의존하는 기타 주체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지속가능성회계기준의 수혜자

투자자

미국 증권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SEC에 증권이 등록된 기업들에게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연례 및 기타 정기적 공시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제2장 중 "중요성"의 정의 참조). 경제 전반에 변화가 발생하면 시장이 자본을 효율적

으로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도 달라지게 되어 상장기업이 공시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SASB 기준은 증권발행기업으로 하여금 현 시점의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공시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2016년 현재, 62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 중인 1,600개 이상의 기관이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지속가능성 사안을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한편 지속가능책임투자포럼(Forum for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전문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산 중 20%가 지속가능성 고려사항을 투자 지시사항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비교 가능하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데이터 및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PRI의 목표 또는 그 밖의 바람직한 지속가능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방해받고 있다. 그러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기존 보고서에서 관련 정보를 추려 취합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SASB의 설립목표는 투자자가 합리적인 노력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속가능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SEC 제출 보고서에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가 효과적으로 공시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SASB 기준 및 기타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 핵심 활동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반영하려는 투자자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고안되었다.

- 펀더멘털 분석: 재무 펀더멘털과 함께 지속가능성 펀더멘털에 대한 정보는 개별 증권 선정을 위한 경영 품질 평가뿐만 아니라 자본 및 부채 가치평가 모형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 비교 및 벤치마킹: 수천 개의 상장기업이 표준화된 산업특유의 지속가능성회계 지표를 공시함으로써 도출된 데이터를 통해 투자자는 중요한 지속가능성 성과 범주에 대해 P2P(peer-to-peer) 비교를 수행하고 증권발행기업을 비교할 수 있는 산업 벤치마크를 수립할 수 있다.
- 포트폴리오 관리: SASB 기준은 특정 산업 내 기업의 중요한 정보라고 여겨지는 지속가능성 주제를 파악한다. SASB의 지속가능 산업 분류체계(SICSD)하는 사업 모형과 지속가능성 영향이 유사한 산업을 분류하여 그룹화한다. SICSD와 산업특유 공시 주제를 함께 활용하면 투자자가 특정 유형의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과소 또는 과대노출 여부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포트폴리오 구축 및 관리 과정에 해당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초과수익(alpha) 추구 및 위험통제를 직접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

- 적극적 참여: 투자자와 기업은 그들이 생산하는 정보와 함께 SASB 기준을 활용하여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그로써 중요한 지속가능성 요소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생산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자발적 독립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 사안을 보고하기 시작한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20%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S&P 500 기업 81%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201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만 3천여 기업에서 80,000건이 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는 작성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자가 가장 관심 있는 지속가능성 사안, 즉 회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큰 사안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CSR보고서에서는 편향적 보고도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가 지각적인(perceptual) 이유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업은 투자자와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요청하는 조사 및 설문에 응하게 되어, 주주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제한적인 반면 증권발행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SASB 기준은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지속가능성 요소들의 세부 사안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기업 경영진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투자자 대상 공시에 있어 비용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학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세부 사안에 중점을 두는 것은 위험조정 주주 수익률 증가 외에도 매출, 매출 성장, 자산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와 상관관계를 갖는다. SASB 지표는 기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시키거나 이에 통합되어 목표 일치 및 조정을 도모하고, 기대치를 공유하며, 사업부에 동기를 부여하고, 최고 수준의 의사 결정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며, 벤치마킹 노력을 알릴 수 있게 한다. SASB 지표는 또한 경영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영업을 식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정책 입안자

SEC와 같은 규제기관은 중요한 주제에 대한 효과적인 공시를 촉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의 산업별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이러한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 또한 각 산업별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러한 주제에 관한 유용한 공시의 양상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 규제기관은 제출된 보고서의 완전성과 효과성 모두를 평가하기 위해 이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중반에, SEC는 투자자들에게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Regulation S-K 공시 요건을 현대화할 방법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을 구하고자 「개념 공개(Concept Release)」를 발

표했다. 제출된 비형식 의견서의 3분의 2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라는 주제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 중 80%는 기업이 공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려면 SEC 제출 보고서상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SASB 기준과 같은 시장 기준을 지지했다.

2. 위원회의 핵심 목적

SASB는 증권발행기업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시할 수 있게 돕는 일에 전념한다. 이 장에서는 기준 제정 기관으로서 SASB의 업무의 지침이 되는 핵심 목적에 대해 기술한다. 위원회의 정규절차는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도록 설계되었다.

- 합리적으로 판단 시 중요할 수 있는 정보
- 기업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 증권발행기업에게 비용효과적인 정보

SASB 기준을 통해 중요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

SASB 기준은 산업별로 기업의 재무상태나 영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속가능성 주제들을 다룬다. SASB는 각 기업이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또 자사의 SEC 제출 보고서에 어떤 정보를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기업에게 있다고 인식한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속가능성 주제를 식별하는 데 있어 위원회는 미국 증권법에서 설정한 "중요성"의 정의를 적용한다.

미국 대법원에 따르면,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누락된 사실이 공개되었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total mix)'이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상당할 경우" 해당 정보는 중요하다.

Regulation S-K에서 정한 요건에 의해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Regulation S-K는 Form 10-K 및 기타 SEC 제출 보고서 작성에 관한 특정 비재무적 공시 요건을 규정하는데, 기업으로 하여금 Form 10-K의 경영진의 논의 및 분석(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of Financial Condition and Results of Operations, MD&A) 부문에 재무상태나 영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알려진 동향, 사건, 불확실성에 대해 기술하도록 요구한다. Form 20-F와 40-F에도 이에 상응하는 요건이 있다.



MD&A에 위와 같은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를 비롯한 해당 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 및 사이버안보 관련 공시 요건에 대한 SEC의 해석지침에서는 Form 10-K의 다른 부분들도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사항, 즉 사업설명서(제229.101)와 위험요소(제229.503(c))에 적용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등록기관들이 규정상 명시적으로 요구되어 있는 공시 대상 정보 이외에도 "보고서 작성 상황에 따라 보고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더 있는 경우, 오도하지 않고" 공개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이러한 요건에 준거하여 SASB 기준은 증권발행기관이 해당 산업 내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에 의해 입증된, 알려진 동향, 사건, 불확실성의 지속가능성 주제를 파악하고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SASB 기준을 통해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SASB 기준은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 사업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사안 관련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지속가능성 정보는 표현이 타당하고, 유용하며, 적용 가능하고, 비교 가능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연계되고, 독립적이며, 분배적일 때 의사결정 유용성이 높아진다.

산업별로 파악된 각 주제에 대해 위원회는 주제별 기업 성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 지표를 선정 또는 개발한다. 회계 지표에는 지속가능성 영향과 더불어 혁신 기회도 고려된다. 그러한 지표들을 종합하면 지속가능성 사안과 장기적 가치 창출 잠재력에 관한 기업 입장의 특징이 드러난다.

SASB 지속가능성회계기준을 이용한 공시는 다음을 가능하게 한다.

- 주요 지속가능성 사안 관련 기업 성과에 대한 P2P(Peer-to-peer) 비교 및 벤치마킹
- 주요 지속가능성 사안 관련 위험 관리 및 성과 개선을 위한 기업의 보다 집중적인 노력
- 투자자를 위한 중요한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
- 재무제표 및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시하여 성과에 대한 투자자의 종합적 이해 증진
- SEC 제출 보고서 및 SEC EDGAR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지속가능성 데이터에 대한 공공 접근
-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하며, 검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SASB 기준은 증권발행기업에게 비용효과적

SASB 기준은 기업이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중요하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이 목적을 달성한다.

1. SASB 기준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속가능성 사안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각 산업별로 고려할 최소 주제 집합을 식별하며, 이 중 대부분을 이미 다수의 상장기업들이 SEC에 보고서 제출 시 어떤 방식으로든 다루고 있다.
2. SASB 기준의 지표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활용되고 있는 이니셔티브와 연계되어 있다. 기준제정 과정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각 공시 주제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존 지표와 관행을 식별해 문서화한다. 가능한 경우, 위원회는 산업별 그리고 일반적 측면에서 SASB 기준과 기존의 지표, 정의, 체계, 경영공시 형식을 조화시켜 기업 보고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위원회는 현재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IPIECA(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등 200여개 기관의 기준과 지표를 참조하고 있다.

또한 SASB 지표를 활용하면 투자자, 분석가, 평가 그룹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얻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설문지의 필요성을 줄일 수도 있다.

3. 기준제정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법의 근본 원칙

위원회는 SASB 기준을 통해 산업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요소들이 식별되는 동시에 증권발행기업에게는 비용효과적이고 투자자에게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공시 지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준제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접근법을 취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ASB 기준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근거기반(Evidence-Based)
- 시장정보기반(Market-Informed)
- 산업특유(Industry-Specific)

근거기반(Evidence-Based)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주제가 합리적인 투자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태나 영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접근법을 취한다. 그 과정에서 이 접근법에 따라 투자자 관심도에 대한 근거와 재무적 영향의 근거를 고려한다. 지속가능성 주제를 분석할 때 위원회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식별하고 재무적 영향 가능성을 평가 할 때 이 두 가지 유형의 근거가 있는지 파악한다.



이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관련성 있고 기업의 SEC 제출 보고서에 포함되기에 적합한 지속가능성 주제들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데, 이는 공시 기준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지표 이기는 하지만 중요성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은 기준제정 과정에서 어떤 사안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SASB 기준에 포함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제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SASB 분석가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주제에 대한 관심 및 재무적 영향의 근거를 추구하는 반면 SASB 기준의 지표들은 종합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성과를 나타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위원회는 지표가 아닌 공시 주제 수준에서 지속가능성 사안의 예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심도에 대한 근거

위원회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관심의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부분적으로 지속가능성 주제의 예상 중요도를 평가한다.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심도에 대한 근거는 다음의 5가지 요소에 따라 평가된다.

1. 재무적 영향 및 위험: 이 요소는 해당 주제 관련 기업 성과가 단기 또는 중기적 재무성과에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평가한다.
2. 법적, 규제적 및 정책적 동인: 기존 규제 또는 변경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과 재무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규정 준수 관련 특정 비용의 내부화를 강제하거나 규제 체제에 따라 실행 가능해지는 새로운 제품, 시장, 또는 사업 모형과 관련하여 좋은 기회가 창출됨으로써 가능해진다.
3. 산업규범 및 경쟁 동인: 산업 현안에 대한 동료 행동(peer action)과 공시로 인해 투자자들이 특정 지속가능성 주제의 관리 및 공시와 관련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이나 성과를 요구할 수 있다.
4. 이해관계자 우려 및 사회적 동향: 이해관계자가 영업 허가 상실, 평판 훼손, 고객 수요 변화, 사업 실행가능성 상의 차질 등이 중장기 재무 또는 영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또는 심각한 단기 재무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5. 혁신 기회: 산업별 지속가능성 과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제품 및 사업 모형을 통해 시장 확대를 촉진하거나 잠재적으로는 경쟁 우위의 새로운 원천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혁신과 관련된 재무적 영향 및 위험 요소는 투자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무적 영향의 근거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의 재무상태나 영업성과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주제의 관리(또는 부실 관리)가 기업의 가치평가나 영업 또는 재무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재무적 영향의 근거를 식별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다양한 유형의 재무적 영향을 뒷받침하는 확실하고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신뢰할만한 근거에 의존한다. 위원회는 주로 두 유형의 정보, 즉 (1) 산업 수준의 정보와 (2) 기업 특유 정보를 분석한다.

산업 수준의 정보를 통해서는 해당 산업 내 기업이 운영하는 재무 및 규제 상황에 대한 정보와 해당 산업 전체가 지속가능성 사안에 어떤 영향을 받거나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 부상 또는 사망률이 높은 산업, 에너지 소비 관련 산업 평균 비용 등). 이러한 정보는 미국 정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환경 및 안전 관련 데이터), 산업 연구 결과, 학술 연구, 금융 출판물 등 신뢰성 있는 자료에서 도출된다. 위원회는 다른 산업에 대비,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산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기업 특유의 정보를 통해서는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 가치평가 또는 재무성과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의 실질적 예를 알아볼 수 있다(기업에 부과되는 고액의 또는 잦은 벌금, 에너지 효율 조치의 시행을 통한 비용 절감, 고객 또는 이해관계자의 행동에 따른 평판 훼손 및 시장 피해 등). 이러한 정보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및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보고를 비롯하여 법적 제출 보고서, 언론, NGO 및 연구기관의 사례 연구 등에서 도출된다.

두 유형의 정보를 통합해보면, 특정 지속가능성 주제의 관리 및 부실 관리로 인해 한 산업 내 대부분의 기업의 가치평가나 영업 및 재무성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 기준상 공시 주제가 시간이 지나도 산업과 관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특정 기업에 의한 일화적 영향보다는 장기적인 동향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별 근본 구조, 규제 환경, 금융 동인을 바탕으로 근거를 평가한다. 이 연구는 새롭게 나타나는 지속가능성 주제가 관련성 있는 SASB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산업 또는 부문의 현재 상태 평가를 통해 보완된다.

위원회는 연구 과정에서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 및/또는 자본비용과 같은 특정 유형의 재

무적 영향을 식별한다.

- 수익/비용: 중요한 지속가능성 요소들이 예상수익, 수익, 시장점유율, 또는 가격결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용은 영업 효율성(에너지, 노동력, 공급망 등),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준수에 필요한 투자, 또는 원자재나 기타 생산투입요소의 가용성 또는 가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자산/부채: 지속가능성 요소들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 부족으로 인해 농경지와 방목지, 그리고 인근 처리시설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노사관계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채 역시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소송 및 규제 조치로 인해 우발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 자본비용/위험 프로파일: 기업의 재무상태와 시장 가치평가는 자본비용의 증가나 자본에 대한 접근 제한을 통해 지속가능성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선된 공시를 통해 위험 노출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가 가능해지고 가변적 성과 또는 전망이 불안정한 산업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가격 책정이 가능해진다.

지속가능성 사안의 재무적 영향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일 수 있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위험 또는 기회)일 수 있으며, 만성 또는 급성일 수 있고, 가격이 책정되거나 책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적 영향은 자본 지출이 필요한 기존 규제 또는 소비자 수요상의 변화 양상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잠재적 영향은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새로운 규제 또는 시장 점유율이나 자본에 관한 경쟁 위협에서 발생할 수 있다. 급성인 영향은 예상 밖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또는 고객 개인정보 또는 안전 침해와 같은 참사로 인해 생길 수 있다. 급성인 영향은 단기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산업 표준과 비교하여 이러한 유형의 위험 관리 성과가 부진한 경우 대개 발생이 예측된다. 만성인 영향에는 규제에 의해 좌초될 수 있는 자산(예를 들어, 석유 매장량)과 연관된 가치의 장기적 침식 또는 투자 철회의 위험이 해당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원 교육 개선을 통한 가치 창출이나 영업 효율성 증대로 인한 비용 절감도 해당된다. 가격이 책정된 위험은 일반적으로 공시가 잘 이루어지고 투자자의 이해도도 높다.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위험은 일반적으로 공시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시된다.

중요한 재무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속가능성 사안을 평가할 때, 위원회는 기업들이 알려진 동향, 수요, 책무, 사건, 불확실성을 Form 10-K의 MD&A 부문에 공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SEC에서 제시한 다음의 두 부분의 판단 절차를 고려한다.

경영진은 MD&A를 통한 정보 공시 의무에 대해 고려할 때 어떠한 동향, 수요, 책무, 사건, 또는 불확실성이 알려진 경우 다음의 두 가지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1. 해당 알려진 동향, 수요, 책무, 사건, 또는 불확실성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가? 경영진이 그러한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

2. 경영진이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실현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해당 알려진 동향, 요구, 책무, 사건, 또는 불확실성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의 재무상태나 영업결과에 중요한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공시가 필요하다.

시장정보기반(Market-Informed)

근거 기반 연구가 위원회의 기준제정 과정의 토대를 제공하지만, 그 결과는 대체로 자본 시장 참여자들(예: 증권발행기업과 주요 투자자 등)의 피드백에 의해 형성된다.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주제의 어떤 측면이 표준화된 공시를 보장하는지, 표준화를 위해 그러한 측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기술하며 측정할 것인지를 고려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신중하게 평가한다. 하지만 SASB가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동기관의 핵심 목표, 즉 금융자본의 이용자와 제공자에게 중요하고 의사결정에 유용하며 비용효과적인 공시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SASB 기준의 근거기반은 중요성에 대한 미국 내 법적 근거에 의거하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대립할 시 유용한 지침이 된다.

위원회의 정규절차에 따라, SASB 기준은 기업 전문가 1/3, 투자자 1/3, 기타 이해관계자 1/3로 구성된 균형 잡힌 산업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거쳤다. 위원회는 특정 주제가 해당 산업 내 대부분의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증권발행기관과 투자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기준 제정을 위해 해당 지속가능성 주제를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위원회는 제안된 지표가 4장에 명시된 판단기준을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산업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구해 새로운 기준이나 기준 개정을 발표하기 전 수렴한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한다.

나아가 SASB 기준 비준 및 보완 과정은 투명하고, 대중 의견 수렴에 개방적이며, 기준제정 전문가로 구성되어 외부분야 및 기술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심의하는 SASB의 관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시장 피드백에 근거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기준이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비용효과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증권발행기업 및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해당 산업 경쟁 구도나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맥락, 또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심사에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향식 시장기반 접근법은 SASB 기준이 시장 요구를 충족하게끔 발전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핵심이다.

산업특유(Industry-Specific)

지속가능성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특정 영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과제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비해 사업 모형과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이 유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곧 그러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한 산업 내에서 자원의 사용, 사업 모형, 기타 작용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에 중점을 두고 해당 산업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회계기준을 개발한다. 그 결과, 해당 산업 맥락을 고려해 기업 성과를 평가하는 재무 분석가들은 중요한 지속가능성 요소들을 재무 펀더멘털과 함께 쉽게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존 산업 분류 체계에서는 지속가능성 특성이 공통적인 산업들이 항상 함께 분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SASB의 산업특유 분류와 충돌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분류 체계에서는 수익 및 기타 경제적 변인을 기준으로 산업의 위계와 계층이 설정되므로 지속가능성 위험 또는 기회는 크지만 경제 발자국(economic footprint)은 적은 산업이 돋보이지 못하게 되는, 그리하여 해당 산업들의 자본 접근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원회는 SICSD를 개발했는데, SICSD, GICS, BICS 같은 전통적인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설정된 이 체계에서는 사업 모형, 자원 집약도, 지속가능성 영향, 지속가능성 혁신 잠재력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에 따라 부문 및 산업이 분류된다. 기업별 SICSD 분류 정보는 회사 종목코드(ticker symbol)를 알면 www.sasb.org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전체적 지속가능성 사안

기후변화, 물 사용, 인적 자본, 정치적 기여와 같이 일부 명백한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대중, 정부 기관, 비정부 단체, 투자자 등 다양한 당사자들이 큰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사안은 물론, 모든 공시 가능 주제에서 예외 없이 동일한 근거기반 및 시장정보기반 접근법을 취한다.

이러한 산업특유 접근법을 통해, 위원회는 각 주제의 연관성 및 개별 SICSD 산업 내 기업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이로써 한 산업의 맥락에서 수집된 근거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산업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의거하여 공시가 권장되는 주제를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나의 주제가 두 종류 이상의 산업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주제는 공통적 사안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주제들과 관련된 정보라도 각 산업마다 상이한 공시 접근법을 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주제는 대개 사업 모형마다 고유한 영향을 미치고, 분석가들이 위험 및/또는 미래 전망을 평가하려면 산업특유의 성과 지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후위험 요소는 다수의 산업에서 나타나지만 성과 지표는 대부분 다른 양상을 띤다. 부동산 산업에서 투자자는 자산의 취약성 및 건

축스톡(building stock) 특성에 관심이 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질병 이동 패턴(disease migration patterns)의 변동이 중요하듯이 대응 준비성(event preparedness)과 사업 연속성 위험(business-continuity risk)도 중요하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경우, 매장량의 탄소 집약도와 현재 배출 정보가 근본적이고 상대적 위험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위원회는 한 산업 맥락 내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성과를 나타낼 최적의 측정 지표를 구한다. 그러나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투자자에게 이 체계가 보다 유용하려면 가능한 한 산업 전반에 걸쳐 유사한 사안들과 유사한 회계 지표를 일관되게 다루는 것이 좋다.

4. 기준 개발의 기본 원칙 및 판단기준

제3장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기준 개발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법은 근거에 기반하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산업특유의 지속가능성 영향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련의 원칙(공시 주제 설정 단계)과 판단기준(지표 설정 단계)에 따라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SASB의 기준제정 업무를 지원하는 외부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 원칙들은 제2장에서 정의한 위원회의 핵심 목표와 함께 적용되어 산업별 기준을 도출할 최종 지속가능성 주제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판단기준은 주제별 기업성과 기술에 사용하도록 제안된 회계 지표의 특성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데 적용되어 그러한 지표를 통해 중요하고 의사결정에 유용하며 비용효과적인 정보의 공시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주제 선정 원칙

산업별 기준이 필요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식별할 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고려한다. 각 후보 주제는 산업 기준에 포함되도록 제안되기 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평가되며, Regulation S-K 보고 상 공시될 필요성이 가장 높은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에 중점을 두고 기준이 수립되도록 한다.

-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위원회는 연구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1) 수익과 비용, (2) 자산과 부채, (3) 자본비용 또는 위험 프로파일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영업 및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주제를 파악한다.
- 투자자 관심도. SASB는 (1) 직접적인 재무적 영향 및 위험, (2) 법적, 규제적 및 정책적 동인, (3) 산업 규범, 모범 사례, 경쟁 동인, (4) 재무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해관계자 우려, (5) 혁신 기회의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한 현재 또는 잠재적 영향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에서 지속가능성 주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을 다룬다.
- 동일 산업 내 전반적 관련성. 위원회는 한 산업에 체계적인 주제 및/또는 그 산업에 고유한 위험과 기회를 대표하는 주제로서 그에 따라 해당 산업 내 다수의 기업에 적용될 만한 주제를

다룬다.

- 기업의 조치 가능성. 위원회는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동향이 개별 기업의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특유 주제로 변환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이해관계자(투자자 및 증권발행기업) 합의 반영도. 위원회는 각 공시 주제에 대해 해당 주제가 산업 내 대부분의 기업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증권발행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회계 지표 판단기준

회계 지표 설정 단계에서 위원회는 각 지속가능성 주제 관련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후보 지표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일련의 판단기준을 고려한다.

- 표현의 타당성: 지표가 다루려고 하는 공시주제 측면과 관련된 성과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거나, 해당 공시주제 측면에서의 성과에 대한 대용치(proxy) 기능을 한다.
- 유용성: 지표가 관련 주제에 대한 영업성과를 관리하는 데 있어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무 분석 수행에 있어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적용가능성: 지표가 해당 산업의 일반적인 운영 맥락을 바탕으로 산업 내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 원칙, 방법론에 기초한다.
- 비교가능성: 지표를 통해 주로 (a) 산업 내 P2P 벤치마킹에 도움이 되고 증권발행기관의 전년대비 벤치마킹에 도움이 되는 정량적 데이터와 (b) 공시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정성적 정보도 산출한다.
- 완전성: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지표가 지속가능성 주제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성과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한다.
- 검증가능성: 데이터 검증 및 인증의 목적상, 지표는 효과적인 내부 통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
- 연계성: 지표가 증권발행기업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지표에 기반 하거나 증권발행기업, 정부, 산업 협회 등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기준, 정의, 개념에서 도출된 것이다.
- 중립성: 지표가 편의적이지 않고 SASB를 대신한 가치판단이 없어, 투자자가 세계관이나 전망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 공시를 제공한다.
- 분배성: 지표가 한 산업 내, 또는 전체 산업에 걸쳐 식별 가능한 범위의 데이터를 도출하도록 설계되어, 이용자가 주제에 관한 성과 또는 주제의 한 측면에 대한 성과를 구분할 수 있다.

5. 표준화된 공시의 요소

각 SASB 기준은 일관된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비용효과적이며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방식으로 제시된다. 보다 넓은 차원에서, SASB 기준은 (1) 공시 지침과 (2) Forms 10-K, 20-F, 또는 40-F 등 미국 및 해외 상장기업이 SEC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와 함께 활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으로 구성된다. 관련성이 있는 한 SASB 기준은 Forms 10-Q, Forms S-1, Forms 8-K와 같은 다른 종류의 SEC 제출 보고서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SASB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표준화된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일반 공시 지침

지속가능성회계기준은 증권발행기업을 위해 범위, 보고 형식, 시기, 제한사항, 미래전망 등 SASB 기준 활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위원회의 공시 지침을 통해 각 산업 수준에서의 지속가능성 주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각 운영 맥락에 따라—해당 산업 내 기업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각 기업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그리고 Form 10-K나 20-F, 또는 기타 SEC 제출 보고서에 공시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이에, SASB 기준은 기업이 중요성 및 공시 의무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을 수행함에 있어 활용할 지침으로 고안되었다.

산업 설명

지속가능성회계기준은 기준의 대상이 되는 산업을 설명한다. 여기에는 사업 모형에 대한 모든 가정 및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산업 부문(segments)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주제 및 주제 설명

지속가능성회계기준은 주제별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관리 또는 부실 관리로 인해 가치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나열하고 간략하게 설명한다.

지속가능성회계 지표

지속가능성회계기준은 각 공시 주제나 주제의 한 측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량적—또는 경우에 따라 정성적—지표를 기업에 제공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전략, 경쟁적 지위, 통제 수준, 성과, 동향 등 보고 데이터의 완전성, 정확성, 비교가능성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특정 회계 지표를 통해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속가능성회계 지표에는 그러한 요소에 대한 서술적 기술이 수반되는 것이 좋다.

기술 프로토콜

각 지속가능성회계 지표마다, 기술 프로토콜은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AT Section 101)에서 정의한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는 '적합한 판단기준



'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 정의, 범위, 회계 지침, 취합, 공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객관성: 판단기준은 편의가 없는 것이 좋다.
- 측정가능성: 판단기준은 주제에 대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측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
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완전성: 판단기준의 완전성이 충족되어, 주제에 관한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관련 요소가 누락
되지 않는 것이 좋다.
- 관련성: 판단기준은 주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좋다

활동 지표

지속가능성회계기준은 증권발행기업의 사업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활동 지표를 포함하기 때문
에 운영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SASB 회계 지표의 표준화를 용이하게 하는데, 이는 관련
공시의 분석에 중요하다.

활동 지표에는 총 직원 수, 제품 생산량 또는 서비스 제공량, 시설 수, 또는 고객 수와 같은
고급 사업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발전소 용량 활용률(예: 특수 화학 기업), 거래 횟수(예: 온
라인 미디어 및 서비스 기업), 병상 이용률(예: 의료 서비스 제공 기업), 또는 확인 매장량 및
추정 매장량(예: 석유와 가스 탐사 및 생산 기업)과 같은 산업특유의 데이터 또한 포함될 수 있
다.

증권발행기업은 이러한 활동 지표에 대해 공시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 활동 지표를 통해 SASB 회계 지표상 명확히 알 수 없는 맥락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활동 지표는 SASB 회계 지표에 의존하는 투자자가 자체 계산을 수행하고 각종 비율을 자체
적으로 도출하는 데 일반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관련성이 유지되는 한, 활동 지표에 대한 정보가 일정 기간마다 설명되고 일관되게 공시되어
야 한다.

부록: SASB 지속가능 산업분류체계®(SICS®)한

기존 산업 분류체계는 수익원을 기준으로 기업이 분류되는 반면, 위원회의 분류 접근법은 기업
의 자원 집약도를 고려하고 위험 및 기회 등 지속가능성 특성이 유사한 산업을 함께 분류한다.

소비재

- 가정 및 개인용품
- 대형 및 전문 유통 및 배급

식음료

- 농산물
- 육류, 가공류 및 유제품

- 전자상거래
- 의류, 액세서리 및 신발류
- 건축품 및 가구
- 가전제품 제조
- 완구류 및 스포츠용품

헬스케어

- 바이오기술 및 제약
- 의료장비 및 의약품
- 헬스케어 제공
- 헬스케어 유통
- 관리형 의료
- 약품 유통

인프라

- 전력 및 발전
- 가스 유틸리티 및 유통
- 수자원 유틸리티 및 서비스
- 폐기물 관리
- 엔지니어링 및 건축 서비스
- 주택건설
- 부동산
- 부동산 서비스

금융

- 상업은행
- 투자은행 및 중개
- 자산관리 및 보관활동
- 소비자 금융
- 모기지 금융
- 증권 및 상품거래
- 보험

기술 및 통신

- 제조전문서비스업(EMS)
및 제조자설계생산(ODM)
-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 하드웨어
- 반도체
- 통신 서비스
- 인터넷 미디어 및 서비스

- 가공식품
- 비알코올음료
- 알코올음료
- 담배
- 식품 유통 및 배급
- 식당

재생가능 자원 및 대체 에너지

- 바이오연료
- 태양 에너지 및 프로젝트 개발자
- 풍력 에너지 및 프로젝트 개발자
- 연료 전지 및 공업용 전지
- 임업 경영
- 펄프 및 종이 제품

추출물 및 광물 처리

- 석유 및 가스 — 탐사 및 생산
- 석유 및 가스 — 종류
- 석유 및 가스 — 정제 및 판매
- 석유 및 가스 — 서비스
- 석탄 사업
- 철강 제조
- 금속 및 채광
- 건축 자재

서비스

- 교육
- 전문 및 상업 서비스
- 호텔 및 숙박
- 카지노 및 게임
- 레저시설
- 광고 및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제작 및 배급

자원 변환

- 화학
- 우주항공 및 국방
- 전기 및 전자장비
- 산업기계 및 제품
- 용기 및 포장



운송

- 자동차
- 자동차 부품
- 차량 렌트 및 리스
- 항공
- 항공 운송 및 물류
- 해상 운송
- 철도 운송
- 도로 운송
- 크루즈선

기타 참고사항

번역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보고지원센터 및 번역자문위원회(정영일, 윤용희, 장의종)

번역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보고지원센터는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가 제정한 산업별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여 제공하였다.

번역일자	국문 번역본	관련되는 SASB 문서
2021. 11. 8.	SASB 개념체계	SASB Conceptual Framework (2017. 2월)

붙임 2 - 기준 적용 지침

1.0 적용가능성

본 「SASB 기준 적용 지침(SASB Application Guidance)」은 모든 SASB 지속가능성회계기준("SASB 기준" 또는 "산업 기준")에 적용된다. 본 지침은 참조에 의하여 각 산업 기준에 통합되고 동 기준 자체의 일부로 간주된다.

SASB 산업 기준에는 공시 주제, 관련 회계 지표와 기술 프로토콜, 각 산업 활동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기술 프로토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문서에 포함된 지침은 회계 지표의 정

의, 범위, 이행, 취합, 표시에 적용된다.

SASB 산업 기준은 www.sasb.org/standards/download/에 공개되어 있다.

1.1 상황 정보 및 추가 지침

SASB 산업 기준과 본 SASB 기준 적용 지침은 정규절차를 따르며 토대문서인 「SASB 개념체계」 및 「SASB 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문서들과 기타 정보자원들은 sasb.org에 공개되어 있다.

2.0 기준 부합

"해야 한다(shall)" 용어는 SASB 기준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요소를 나타내기 위하여 동 기준 전체에서 사용된다. "할 수도 있다/하는 게 좋다(should)" 용어는 의무사항이 아닌 지침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며, 그 지침에서 SASB 기준 이행을 위해 권장되는 접근법을 제공한다. "할 수 있다(may)" 용어도 의무사항이 아닌 지침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지만, 그 지침에서 SASB 기준 이행을 위한 선택적 접근법을 제공한다.

SASB 기준 활용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본 문서에 포함된 지침과 기준 요구사항("해야 한다(shall)" 조항으로 표시됨)은 공시가 해당 산업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2.1 기준 활용 명시

기업이 SASB 기준을 활용하여 보고하는 경우, 동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해당 SASB 기준을 언급해야 한다.

2.2 누락 및 조정

위원회는 투자자에게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표준화된 공시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실무 영역이며, 일부 기업의 경우 특정 회계 지표를 단기적으로는 공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정 공시 주제 및/또는 관련 지표를 누락 및/또는 조정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기업이 이 기준을 활용하여 투자자 공시를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한 개 이상의 공시 주제 및/또는 회계 지표를 누락하는 기업은 해당 누락뿐 아니라 누락에 대한 근거를 공시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어떠한 공시 주제가 기업의 사업 모형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 기업은 해당 공시 주제와 관련 지표들을 적용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누락하였음을 공시하는 게 좋다.

기업이 지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표의 조정 사실뿐 아니라 그 조정 근거를 공시해야 한다.

3.0 보고경계

SASB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보고경계에 재무보고 목적상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포함해야 한다. 연결기업 공시는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조정될 수 없다.

비연결기업은 보고경계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 하나 이상의 SASB 공시 주제가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비연결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한해 그러한 정보를 공시할 수도 있다.

3.1 보고실체 및 관련 용어

"보고실체(보고기업)" 및 "기업"이라는 용어는 SASB 기준 전체에 걸쳐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들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국제회계기준(IFRS)과 일관되게, 보고실체는 재무제표 작성을 선택하거나, 작성이 요구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회사"라는 단어에도 적용된다.

4.0 보고 형식

4.1 재무 데이터 사용

회계 지표(해당 기술 프로토콜에 정의된 바와 같음) 또는 SASB 기준 내 활동 지표가 재무데이터(예: 수익, 매출원가, 벌금으로 인해 공시된 비용 등)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재무데이터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보고된 해당 재무 데이터와 일치하여야 한다.

4.2 활동 지표 및 정규화

위원회는 성과 데이터의 정규화가 SASB 기준에 따른 공시 분석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SASB 산업 기준에는 보고의 정확한 평가 및 비교가능성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활동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기업은 위와 동일한 목적에 의해, SASB 기준에 따른 공시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사업 데이터를 공시할 수 있다.

4.3 측정 단위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보고는 국제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units)를 따

르는 게 좋다.

측정 단위로 보고 통화가 명시된 경우, 기업은 자사의 재무제표에서 사용한 보고 통화를 사용해야 한다.

4.4 불확실성

위원회는 특정 지속가능성 정보를 측정하거나 보고할 때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제삼자 보고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의존 또는 환경 및 기타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위한 신생 기술 같은 변수와 관련될 수 있다. 데이터 보고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은 그 특성 및 가능성을 논의하는 게 좋다.

4.5 추정치

위원회는 특정 변환계수(conversion factors)에 대한 의존 또는 최소허용값(de minimis values) 제외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추정치가 특정 정량적 공시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추정치와 범위의 사용이나 최소허용값의 제외를 막지 않는다. 추정치 또는 범위를 사용하거나 최소허용값을 제외하는 경우, 기업은 그 성격을 논의하는 게 좋으며, 해당 지표에 대한 유의미하고 적절한 회계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포함시켰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좋다.

4.6 보고기간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보고기간은 기업의 회계연도와 일치해야 한다.

5.0 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인증

투자자 대상 공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고 기업은 지속가능성 정보의 개발 및 공시와 관련하여 경영진 참여, 이사회 감독, 내부통제를 포함하는 지배구조 체계를 마련, 이행,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이 재무 보고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SASB 기준은 기업이 제삼자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인증기준으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SASB 기준에 있는 공시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할 때, 적절한 경우, 기업은 보고 데이터의 완전성, 정확성, 비교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 요소에 대한 서술적 기술을 포함할 것을 고려하는 게 좋다. 서술적 기술은 정량적 정보에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서술적 기술은 다음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수 있다



- a. 해당 주제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기업의 지배구조로, 여기에는 이러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이사회의 감독 및 경영진의 역할이 포함됨
- b. 해당 주제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단기, 중기 및 장기적으로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영향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접근법
- c. 기업의 해당 주제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 및 이러한 위험을 기업의 전반적 위험 관리 과정에 통합하는 방식
- d. 해당 주제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지표 또는 목표 활용

6.0 참고자료 업데이트

SASB 기준은 법, 법률, 제삼자 지침, 프로토콜, 기준, 간행물 및 기타 참고자료를 참조하거나 통합한다. 이러한 참고자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기업이 기준을 적용할 때, 최신 참고자료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최신 참고자료를 포함시킨 기업은 이러한 사실과 근거를 공시해야 한다.